광주 시의원 늘고 지구당 부활하나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내주 재가동

12일 전체회의, 내년 '지방선거 룰' 개선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회의를 갖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지구당 부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내년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룰'을 논의하기로 했다.

5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시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한 정개특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갖는 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당공천과 선거구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본격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특히 광주의 광역의원 정수 증가와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의 경우, 지난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시의회 의원 하한 정수(비례 제외)를 16인에서 19인으로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개특위 논의가 가시화됐다.

정수 증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운영되며 교육위원회의 정수로 광주·대전·울산 7인(일반의원 3인, 교육의원 4인)으로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정수가 19인(비례 3인포함)으로 운영되는 광주·대전·울산광역시 의회는 3명의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자동 배정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으로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각 상임위별 6인→5인)를 구성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 외에도 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서명했으며 해당 광역시의 지역구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광주에서는 남구, 북구, 광산구 등에서 각 1명의 광역의원 정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또 지구당 부활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될 경우 민주당 복당 후에도 지역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있는 강운태, 이윤석 의원이 자연스럽게 지구당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이 커서 광주·전남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장흥서 한옥 민박 체험해 보세요"

전남도 '슬로시티' 신덕마을에 민박단지 개소

'슬로시티'로 지정된 장흥군 유치면 신덕마을에 한옥 민박단지가 조성을 시작으로 외지 관광객을 맞기 위한 전남도의 슬로시티 숙박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6일 오후 신덕마을에서 박준영 도지사, 이명흠 장흥군수, 신덕마을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 슬로시티 한옥 민박단지 개소식'을 갖는다.

신덕마을 한옥민박단지는 총 8동으로 착공 1년여만에 준공돼 보림사와 지렁이 생태학습장 등 인근 생태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전통주거문화 체험장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슬로시티 지역에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등 4개 슬로시티 지역에 한옥 민박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한옥민박 1곳당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원만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6천만원 정도로 82.6㎡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슬로시티의 한옥민박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주민 소득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혁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지역주민 소득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슬로시티 '1박 2일' 활성화 등 슬로시티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벌써 크리스마스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산타학교' 학생들이 요정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런던 중심가를 걸어가고 있다. 영국에는 전문적으로 산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산타학교가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친환경공법 도입

탄소배출 줄여 300억원대 탄소배출권 확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해 300억원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CDM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로 절감되는 탄소량 등을 UN이 탄소배출권으로 공인해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거나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5일 "오는 2011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CDM을 채택키로 하고 도시철도건설추진단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분야 CDM사업 전문업체인 스위스 그루터(Grutter)사와 제휴,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UNFCCC)에 CDM사업으로 인증을 받아 최종 탄소배출권(CERs)을 얻어낼 계획이다.

시는 광주도시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되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이 본격 개통한 후 10년 동안 300억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11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 42.5㎞의 확대순환선에 지상고가 경량전철로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CDM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운영으로 탄소배출량을 크게 절감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정가 라운지

이용섭 '지방대생 취업' 난장 토론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6일 조선대에서 지방대생 취업문제를 주제로 난장 토론을 벌인다.

민주당 민생본부와 조선대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날 오후 1시 조선대 치과대학 1층 강당에서 열리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학부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게 된다.

토론은 '지방대생 취업문제, 활로는 없는가'를 주제로 지방대생 실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확인한 뒤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학·정부·정치권 등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대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당 차원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기업 취업 특강' 눈길

○…한나라당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색투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5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는 이날 호남대 국제회의실과 목포대 무안캠퍼스에서 각각 300~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취업특강을 위한 리스닝 투어(Listening Tour)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강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입사전형의 특징과 공기업 면접관의 채용기준 등 공기업 완전정복을 위한 최근의 동향과 합격비책 등을 소개했다. 또 호남대와 목포대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대학생의 취업애로, 지방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용연 정수장 확장

하루 22만t→30만t으로

광주시가 용연정수장을 확장해 하루 정수량을 현재 22만t에서 3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용연정수장의 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8만4천353㎡에서 11만4천116㎡로 2만9천763㎡ 늘리기로 했다. 총 사업비 606억원 전체를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용연정수장의 면적이 늘어나면 하루 평균 정수량이 22만t에서 30만t으로 대폭 확대된다.

용연정수장 확장 공사가 성공리에 이뤄지려면 예산 확보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원활한 협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 대표단, 6자틀내 북미대화 언급"

막판 외교전 돌입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6자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를 언급하는 신축적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리 근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비공개 북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분명히 더 선호하지만, 6자회담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한 북한 참석자는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과의 양자관계가 재개되는 최근의 좋은 신호들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언제든 미국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역내 미군의 주둔을 북한이 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한 북한 참석자는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